

한국어 ‘알겠다’와 ‘알았다’의 대답 방식에 관한 연구

— 사회언어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

김성환*

|| 차례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및 과정
- IV. 요인별 결과 분석
- V. 결론

【 】

본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에 관한 ‘알다’ 동사의 대답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어의 ‘알다’ 동사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의 대답 방식을 사용한다. 하나는 ‘알았다’ 대답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알겠다’ 대답 방식이다. 형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혀 다르지만 그 의미와 기능은 동일하다. 이는 타 외국어와 비교해 보아도 한국어의 독특한 특징이다. 본고에서 ‘알다’ 동사의 두 가지 대답 방식을 사회언어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분석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어의 특징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어 화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요소에 기인한다고 예측해 본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적 및 문화적 요소인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친밀도, 관계도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본 연구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알다’ 동사의 두 가지 대답 방식을 취하는 한국어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두 가지 대답 방식인 ‘알았다’와 ‘알겠다’ 대답 방식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만이 가지는 성향을 밝히고 이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전임 연구원

데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대답 방식, 알겠다, 알았다, 사회적 요소, 문화적 요소, 설문지법

I. 서론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인지하였음을 표현하는 데에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어에는 상대방의 질문에 관한 그 의도와 의미를 인지하였음을 표현하는 어휘들이 존재하며, 그 어휘들 가운데에는 ‘알다’, ‘이해하다’, ‘지각하다’, ‘깨닫다’, ‘인식하다’, ‘인지하다’, ‘알아듣다’ 등의 동사가 존재한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동사 ‘알다’이다.

그런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동사 ‘알다’를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한다. 하나는 ‘알았다’이며 다른 하나는 ‘알겠다’이다. 두 가지 형태의 대답 방식은 모두 인지 동사인 ‘알다’를 기본형으로 가진다. ‘알았다’와 ‘알겠다’의 두 가지 대답 방식은 그 형태가 다르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 한국어의 동사 ‘알다’는 ‘알았다’와 ‘알겠다’의 두 가지 형태로 각각 나누어지지만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기능과 의미를 수행한다. 다음은 동사 ‘알다’의 형태 변화를 시제 중심으로 나누어 보고 시제에 따라서 어떠한 의도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본다.¹⁾

1) 동사의 활용형은 시제(時祭)에 의해서 그 형태가 변화함을 의미한다. 물론, 서법(敍法)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을 경우, 단순히 미래 시제로만 치부(置簿)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문장의 맥락에 따른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방법을 배제시키고, 단지 동사의 형태에만 초점을 맞추어 시제를 중심으로 그 형태가 각각

- ① 동사 '알다'의 과거 시제형 '알았다'
 - 과거 시제형인 '알았다'는 기존에 몰랐던 사실에 관해서 새로운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사용.
(예) 내 말 잘 알았어? 알았어. (O)
- ② 동사 '알다'의 현재 시제형 '알다/안다'
 - 현재 시제형인 '알다/안다'는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에 관해서 현재도 인지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
(예) 내 말 잘 알고 있어? 알아. / 안다. (O)
- ③ 동사 '알다'의 미래 시제형 '알겠다'²⁾
 - 미래 시제형인 '알겠다'는 기존에 몰랐던 사실에 관해서 새로운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사용.
(예) 내 말 잘 알겠어? 알겠어. (O)

이처럼 한국어의 동사 '알다'는 과거 시제형과 미래 시제형은 질문에 대한 몰랐던 사실에 관해서 새로운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동일하게 사용된다. 다음은 동일한 질문에서 동사 '알다'가 '알았다'와 '알겠다'의 두 가지 대답 방식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이다.

- ① “저기, ○○○씨,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알겠습니까?”
- ② “저기, ○○○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 오늘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③ “저기, ○○○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2) 본고는 '-겠-'선어말 어미가 미래 시제형으로 보는 다수설의 입장을 취한다. 이익섭, 채완(1999:268-269)에 따르면 국어에서는 미래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미래 시제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문장은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 부탁에 관한 질문, 명령에 관한 질문 형식으로 ‘알았다’와 ‘알겠다’ 두 가지 대답 방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외국어의 경우에 한국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거 시제형과 미래 시제형의 동사가 동일한 질문에 사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관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³⁾

① 영어

㉠ Do you know (what I say)?

Yes, I know. (○) / I will know. (X)

㉡ Do you understand ?

Yes, I see. (○) / I will see. (X)

Yes, I got it. (○) / I will get it. (X)

Yes, I understand. (○) / Yes, I will understand. (X)

② 일본어

㉠ あなたはわかりますか? わかりました。(○) / わかります。(X)

㉡ あなたは知りますか? 知りました。(○) / 知ります。(X)

③ 중국어

㉠ 你知道了嗎? 我知道了。(○) / 我將會知道了。(X)

㉡ 你知道嗎? 我知道。(○) / 我將會知道。(X)

위에서 본 것처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의 경우 한국어와 달리 과거형을 사용한다. 사실 한국어와 영어를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

3) 본고는 한국어가 가지는 대답 방식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외국어의 대표적 언어로 간주하고 한국어와 비교한다.

다. 영어의 경우에는 질문의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에 따라서 그 대답 방법도 동일하게 취하기 때문이다. 현재형 질문에서 현재형을 대답하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현재형 질문이라도 과거형과 미래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동일한 질문에서 시제가 다른 형태의 동사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 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일본어의 경우에는 한국어 '알다'동사에 해당하는 '分かる'와 '知る' 동사는 화자의 질문에 대하여 청자가 인지하였음을 표현하는 경우에 대부분 사용한다. 일본어의 경우에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た'형이 결합된 과거형을 사용한다. 중국어의 경우 질문하는 화자에 대한 반응으로 '了'완료형이 붙은 형태로 사용한다. 또한 '了'완료형이 붙지 않은 형태로도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어의 미래 또는 의지를 나타내는 '-겠-' 선어말 어미에 해당하는 '將會'는 '了'한 문장 내에서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질문의 대답 방식으로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⁴⁾

앞에서 살펴본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시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게 되면 현재 시제형 또는 과거 시제형을 사용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미래 또는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 시제형과 동사 '알다'에 해당하는 어휘와 결합되어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과거형 '알았다'와 현재형 '알다/안다' 그리고 미래형 '알겠다'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알았다'와 '알겠다'는 동일한 질문에서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질문이 주어진 당시의 상황적 요소에 따라서 그 대답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질문에서 어떤 상황적 요소⁵⁾에 따라서 '알았다'와 '알겠다'가 다르게 사용하

4) 중국어에서 말하는 '將會'형은 미래와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어의 '-겠-' 과 동일한 기능과 의미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미래형 사용을 할 수 없음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5) 본고의 상황적 요소는 질문의 종류와 질문자와 질문에 받은 자의 관계 및 친밀도를

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동사 ‘알다’의 두 가지 형태의 대답 방식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적 요소 가운데서 질문의 종류와 상대방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알았다’와 ‘알겠다’의 쓰임의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알다’ 동사의 두 가지 대답 방식을 상황적 요소에 맞게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준안을 제시하고 한국어만이 가지는 사회적, 문화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II. 이론적 배경

1. 동사 ‘알다’ 정의 및 개념

하나의 질문에 있어서 그 상황적 요소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 의미 해석에 따라서 그 대답 방식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동일한 질문이더라도 상황적 요소에 의해서 발화자의 질문의 의도가 달라져서 사람마다 그 대답 방식의 선택이 달라진다. 이러한 동일한 질문에 관한 그 대답 방식을 선정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감각 기관인 청각 기관의 정상적인 작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인지적 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청각 기관인 귀를 통해서 상대방이 발화하는 말소리를 듣게 되고, 그런 후에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인간의 뇌에서는 발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인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의 심리적, 정신적 작용을 통해서 그 발화 내용의 의미를 해석, 판단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끝나게 되면 청자는 발화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상대방인 발화자에게 청자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이때 사용되는 어휘를 인지적 표현 어휘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어휘들 가운데 인지 동사가 존재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지 동사란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발화된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감정과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결정하게 된다고 정의한다. 우형식(1991:408~409)에서 인지에 의한 사고 행위에는 지각, 감각, 사고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적극적'과 '소극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⁶⁾ 변정민(2001)에서는 인지 동사들은 하나의 대상을 전제로 하였을 때 그것에 관한 판단과 사유의 정신 활동을 하는 동사 부류라고 말한다. 인지 동사는 질문을 한 화자의 의도와 의미 해석을 통해서 결정된다. 발화가 이루어지는 당시의 상황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화자의 질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대답 방식을 선택한다. 이때, 인지 동사들 중에서 하나의 인지 동사가 정해지고 또한 그 인지 동사의 형태가 결정된다.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상대방 질문의 의도를 인지하였으면 '알다' 동사의 과거형 또는 완료형에 해당하는 '알았다'가 기본적으로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⁷⁾ 인지 동사 '알다'의 경우는 '알겠

6) 변정민(2001:5) 재인용

	⇨ 적극적		소극적 ⇨
지각	깨닫다, 기억하다, 알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등등	착각하다, 오인하다, 오해하다 등등	모르다
감각	보다, 듣다	느끼다	
사고	확신하다, 생각하다, 믿다	간주하다, 여기다, 짐작하다, 추정하다, 치다 등등	있다

7) 동사의 시제에 따른 형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질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인지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표현을 하는데 예는 과거형이 적합한 형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지함에 있어서 표현으로 미래형의 사용은 부적합하다.

다'라는 미래 시제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알다' 동사 이외에 인지 동사에 속하는 다른 동사도 '-겠-'과 결합한 미래 시제형의 사용이 가능한지 '알다' 동사와 인지 동사에 속하는 다른 동사들과 비교할 것이다. 인지 동사인 '알다'와 다른 인지 동사들의 비교는 '2.3.'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겠-'선어말 어미의 기능 및 의미

'-겠-'선어말 어미에 관해서 '-겠-' 선어말 어미를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⁸⁾

첫 번째는 용언과 '이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 '-었-'의 뒤에 붙어, 미래의 일이나 추측한 바를 나타낸다.

- ① 지금 출발 하면 모레 아침에 도착하겠네.
- ② 잠시 후에 대통령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 ③ 내일은 곳에 따라 흐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언과 '이다'의 어간 뒤에 붙어, 어떤 일에 대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 ① 내가 이곳에 남겠어.
- ② 다음 대회에는 꼭 우승을 하고야 말겠어.
- ③ 모두가 그만 두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겠어.

세 번째로 용언과 '이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 '-었-'의 뒤에 붙어,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8)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인용.

- ①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 ② 이걸 지금 다 끝낼 수 있겠어?

네 번째로 용언과 '이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 '-었-'의 뒤에 붙어, 어떤 말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 ① 처음 뵙겠습니다.
- ② 잠시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용언과 '이다'어간 뒤에 붙어, 주로 부사 '다'와 함께 쓰여,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 또는 상대에게 의아스럽거나 불만스러운 상태임을 나타낸다.

- ① 별 이상한 놈을 다 보겠네.
- ② 살다 살다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겠네.

앞에서 사전적 의미를 살펴 본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인식 동사인 '알다'를 사용하는 경우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의도와 의미로 '알겠다'라는 대답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짐작해 본다. 그러나 '알겠다' 대답 방식은 '알았다' 대답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곡한 표현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단정 및 확신을 나타내는 데에 조금 약하게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알았다' 대답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알겠다'라고 대답 방식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살펴 볼 것이다. 실제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알겠다'라고 대답하는 그 의도 및 의미가 국어학적 입장과

동일한 것인지 살펴보고, 어떠한 의도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알겠다’라는 대답 방식을 취하는 지에 대해서 사회언어학적인 요소⁹⁾를 중심으로 밝혀볼 것이다.

3. ‘-겠-’ 선어말 어미의 결합에 관한 ‘알다’와 인식 동사의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인식 동사 부류에 속하는 동사들과 ‘알다’ 동사가 ‘-겠-’ 선어말 어미와 결합하였을 경우를 살펴보려고 한다. ‘알다’ 동사와 다른 인식 동사들의 형태 변화 및 의미에 대해서 비교함으로써 모든 인식 동사에 ‘-겠-’ 선어말 어미의 결합 허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동사 ‘알다’ 만 가지는 특징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알다’ 동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인식 동사들 가운데 ‘이해하다’, ‘인식하다’, ‘알아듣다’, ‘깨닫다’, ‘인지하다’라는 동사들과 형태 및 의미에 대해서 비교하려고 한다. 어떠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질문의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질문의 세 가지 종류에는 첫 번째는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 두 번째 부탁 및 요청에 관한 질문, 세 번째는 명령에 관한 질문이다. 세 가지 형태로 질문을 하였을 경우 ‘-겠-’ 선어말 어미와 결합하여 취할 수 있는 대답방식은 다음과 같다.

9) 본고는 사회언어학적 요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 출생지, 국적 등이 사회언어학적 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박영순(2001)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의 절차(피조사자의 선정, 조사환경 선정, 언어 변이의 선정, 자료수집, 자료에서 언어변이와 변이형의 발견, 자료 분석, 결과 도출 및 해석)에 따라 연구 방법을 진행한다. 그리고 Labov와 Sankoff의 통계학적 수치화 및 확률적 방법(the quantitative study)을 통해서 데이터화 한다.

①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

- ㉠ 철수야, 내 말을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 ㉡ 철수야, 내 말을 이해하겠니?
네, 이해하겠습니다.
- ㉢ 철수야, 내 말을 인식하겠니?
네, 인식하겠습니다.
- ㉣ 철수야, 내 말을 알아듣겠니?
네, 알아듣겠습니다.
- ㉤ 철수야, 내 말을 깨닫겠니?
네, 깨닫겠습니다.
- ㉥ 철수야, 내 말을 인지하겠니?
네, 인지하겠습니다.

② 부탁 및 요청에 관한 질문

- ㉦ 철수야, 부탁 좀 하자?
네, 알겠습니다.
- ㉧ 철수야, 이것 좀 같이 옮겨 줄 수 있겠니?
네, 알겠습니다.

③ 명령에 관한 질문

- ㉨ 철수야, 빨리 좀 해.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겠' 선어말 어미와 '알다' 동사의 결합과 다른 인식 동사들이 결합의 사용 가능성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1>처럼 '알다' 동사 외에는 다른 인식 동사들은 '겠' 선어말 어미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다소 어색한 표현으로 한국어다운 표현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¹⁰⁾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 동사들 가운데서 ‘꺄’선어말 어미와 결합하여 사용이 가능한 ‘알다’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알다’ 동사를 가지고서 ‘알았다’와 ‘알겠다’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의도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알다’ 동사의 두 가지 대담 방식을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질문유형	알다	인식하다	알아듣다	깨닫다	인지하다
가능성 여부	사용	사용	사용	부적합	부적합
부탁 및 요청	사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명령	사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표1. ‘꺄’선어말 어미의 결합 한 ‘알다’ 동사와 인식 동사 비교〉

‘알다’ 동사의 ‘알았다’와 ‘알겠다’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의도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담 방식의 차이점을 밝혀보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알았다’와 ‘알겠다’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또한 한국어를 교수하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10) 본고의 제시된 인식 동사와 ‘꺄’선어말 어미의 결합된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화자 본인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답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인식 동사 ‘깨닫다’의 경우 본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에 ‘네, (나는) 깨달았다’라는 표현이 적합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에 예측 및 짐작을 통해서 판단하는 경우에 ‘네, (그/그녀는) 깨닫겠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이오덕(1990)에서 ‘깨닫겠다’를 사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오덕(1990)은 김동인의 ‘나의 소설’이라는 작품에서 ‘우리의 양심은 깨닫겠다’라고 표현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Ⅲ. 연구 방법 및 과정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회언어학적 요소에 따라서 한국어의 대답 방식인 ‘알았다’와 ‘알겠다’의 표현 방식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실제로 두 가지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데에 어느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에 관한 빈도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설문지법의 제시된 질문의 종류와 질문하는 상대방과의 연령과 지위 및 관계도, 친밀도에 따라 어떤 대답 방식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대답 방식을 사용하게 된 의도 및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2. 연구과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변수를 고려하여 연령 및 세대, 사회 계층, 학력, 직업, 성별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이며, 전체 참여자의 수는 200명으로 선정하였다. 세대별로는 각각 40명씩 선정하였으며, 세대 별 내에서 성별로 각각 20명씩 구성하여 선정하였다.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연구에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변수에 의해서 각각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세대	성별	학력	직업	인원
10대	여	중학교 재학	학생	10
		고교 재학		10

10대	남	중학교 재학	학생	10
		고교 재학		10
20대	여	대학교 재학	대학생	20
	남	대학교 재학	대학생	20
30대	여	대학교 졸업	공무원	2
			교사	3
			서비스	7
			회사원	8
	남	대학교 졸업	서비스	5
			연구원	2
			유통업	3
			자영업	2
40대	여	대학교 졸업	공무원	2
			교사	3
		고교 졸업	주부	5
		대학교 졸업		4
		고교 졸업	회사원	5
	대학교 졸업	1		
	남	고교 졸업	공무원	1
		대학교 졸업		1
		대학교 졸업	교사	2
		고교 졸업		5
		대학교 졸업	자영업	4
		고교 졸업		4
대학교 졸업	회사원	4		
대학교 졸업		3		
50대	여	고교 졸업	공무원	1
		대학교 졸업		2
		대학교 졸업	교사	1
		고교 졸업	자영업	2
		고교 졸업	주부	3

50대	여	고교 졸업	회사원	4
		대학교 졸업		4
	남	대학교 졸업	공무원	1
		고교 졸업		5
		대학교 졸업	자영업	5
		고교 졸업		5
		대학교 졸업	회사원	4
		고교 졸업		5
전 체				200

〈표2. 연구 참여자의 배경 정보〉

2) 설문지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며 설문지의 내용은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과 '요청 및 부탁에 관한 질문' 그리고 '명령에 관한 질문'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관계도와 친밀도는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관계도의 경우 '손윗사람 혹은 상급자', '친구 혹은 동급자' 그리고 '손아랫사람 혹은 하급자'로 구분하였으며 친밀도의 경우는 '아주 친함', '친함', '친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친밀도의 경우 친하다는 정도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친밀도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추가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IV. 요인별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지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사회언어학적 요소인 성별, 연령, 관계도, 친밀도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난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설문지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설문지에

제시된 3가지 질문 유형에 대해서 설문지법 참여자의 ‘알겠다’로 답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3가지 질문 유형 별로 참여자의 ‘알겠다’ 대답 방식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 성별

본 설문지법에 참여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남·녀의 성별에 관해서 분석한 결과는 친밀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친밀도 - 아주 친함

본 설문지의 친밀도의 ‘아주 친함’에 해당하는 결과는 <표3>과 같이 정리하였다. ‘아주 친함’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알겠다’라는 대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여성의 경우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알겠다’라는 대답 방식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명령에 관한 질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알겠다’라는 대답 방식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명령에 관한 질문’에서 제일 낮게 나타났다.

성별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			요청 및 부탁에 관한 질문			명령에 관한 질문		
	관계도 ¹¹⁾								
	A	B	C	A	B	C	A	B	C
여	95	98	98	94	94	95	93	90	90
남	94	87	87	88	84	82	88	82	80
합계	189	185	185	182	178	177	181	172	170

<표3. 설문 결과 - ‘아주 친함’>

11) 데이터 정리 상에서 ‘관계도’는 다음과 같이 표기함.

- 관계도: A - 손윗사람/상급자, B - 친구/동급자, C - 손아랫사람/하급

관계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손윗사람/상급자'의 경우 '알겠다' 대답 방식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손아랫사람/하급자'의 경우 '알았다' 대답 방식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도와 상관 없이 '알겠다'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친밀도 - 친함

본 연구의 친밀도의 '친함'의 경우는 친밀도 '아주 친함' 보다 '알겠다' 대답 방식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질문의 유형과 상관없이 '알겠다' 대답 방식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명령에 관한 질문'에서 '알겠다'라는 대답 방식의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 보다 명령의 의미를 띠는 질문에는 '알았다' 대답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			요청 및 부탁에 관한 질문			명령에 관한 질문		
	관계도								
	A	B	C	A	B	C	A	B	C
여	96	97	97	94	94	94	93	92	92
남	95	89	88	89	86	85	88	82	82
합계	191	186	185	183	180	179	181	174	174

〈표4. 설문 결과 - '친함'〉

관계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관계도의 정도와 상관없이 '알겠다' 대답 방식이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친구/동급자'와 '손아랫사람/하급자'의 관계도에서 '알겠다' 대답 방식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대답 방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친밀도 - 친하지 않음

본 연구의 친밀도의 ‘친하지 않음’의 경우는 ‘알겠다’ 대답 방식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알겠다’ 대답 방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두 개의 친밀도(아주 친함, 친함)와 비교 해 본다면 남성과 여성의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친밀도의 ‘친하지 않음’에는 성별과 관계없이 대답 방식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알겠다’ 대답 방식의 사용 현상이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여성의 경우에 질문의 유형과 상관없이 ‘알겠다’ 대답 방식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명령에 관한 질문’에서 ‘알겠다’라는 대답 방식의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 보다 명령의 의미를 띠는 질문에는 ‘알았다’ 대답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			요청 및 부탁에 관한 질문			명령에 관한 질문		
	관계도								
	A	B	C	A	B	C	A	B	C
여	99	97	97	97	96	96	94	97	94
남	97	96	94	92	92	90	88	85	88
합계	196	193	191	189	188	186	182	182	182

〈표5. 설문 결과 - ‘친하지 않음’〉

다음으로 관계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친구/동급자’의 경우에 ‘알겠다’ 대답 방식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손윗

사람/상급자'와 '손아랫사람/하급자'의 경우 '알겠다' 대답 방식이 동일한 수치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남성과 여성이 관계도에 따라서 대답 방식을 사용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령

본 설문지에 참여한 참여자의 연령에 따라 10대~50대로 구분지어 설문 결과를 분석하고 세대별로 정리하였다.

1) 관계도 - '손윗사람 혹은 상급자'

본 설문지의 관계도 '손윗사람 혹은 상급자'인 경우에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알겠다'라는 대답 방식의 사용에 대한 결과를 연령별로 정리하였다. 이는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령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			요청 및 부탁에 관한 질문			명령에 관한 질문		
	친밀도 ¹²⁾								
	a	b	c	a	b	c	a	b	c
10대	40	40	40	37	37	38	35	35	35
20대	38	40	40	38	38	39	36	36	36
30대	39	39	40	35	35	38	37	37	37
40대	37	37	40	40	40	37	39	39	39
50대	35	35	36	32	33	37	34	34	35
합계	189	191	196	182	183	189	181	181	182

<표6. 설문 결과 - '손윗사람 혹은 상급자'>

12) 데이터 정리 상에서 '친밀도'는 다음과 같이 표기함.

- 친밀도: a - 아주 친함, b - 친함, c - 친하지 않음

연령별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50대가 ‘알겠다’ 대답 방식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질문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령에 관한 질문’에서 제일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 그리고 친밀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c. 친하지 않음’의 경우에 ‘알겠다’ 대답 방식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계도 - ‘친구 혹은 동급자’

다음은 설문지의 관계도 ‘친구 혹은 동급자’에 관한 결과를 <표7>에서 정리하였다. <표7>의 결과를 확인하면 50대가 ‘알겠다’ 대답 방식을 제일 적게 사용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에 ‘알겠다’ 대답 방식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다. 질문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령에 관한 질문’이 제일 낮은 수치였다. 반대로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제일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연령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			요청 및 부탁에 관한 질문			명령에 관한 질문		
	친밀도 ¹³⁾								
	a	b	c	a	b	c	a	b	c
10대	40	40	40	38	39	38	37	35	35
20대	40	40	40	39	39	39	36	36	36
30대	37	37	39	35	35	38	34	34	37
40대	34	34	38	33	33	36	34	34	39
50대	34	35	36	33	35	37	31	35	35
합계	185	186	193	178	181	188	172	174	182

<표7. 설문 결과 - ‘친구 혹은 동급자’>

13) 데이터 정리 상에서 ‘친밀도’는 다음과 같이 표기함.

- 친밀도: a - 아주 친함, b - 친함, c - 친하지 않음

다음으로 친밀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c. 친하지 않음'의 경우에 '알겠다' 대답 방식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a. 아주 친함'의 경우에 '알겠다' 대답 방식이 제일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3) 관계도 - '손아랫사람 혹은 하급자'

설문지 관계도 '손아랫사람 혹은 하급자'에 관해서 정리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50대가 '알겠다' 대답 방식을 제일 적게 사용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에 '알겠다' 대답 방식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다. 질문 유형별로 '알겠다' 대답 방식의 사용하는 수치를 살펴보면 '명령에 관한 질문'이 제일 낮은 수치였다. 반대로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제일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밀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c. 친하지 않음'의 경우에 '알겠다' 대답 방식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a. 아주 친함'의 경우에 '알겠다' 대답 방식이 제일 낮은 수치였다.

연령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			요청 및 부탁에 관한 질문			명령에 관한 질문		
	친밀도 ¹⁴⁾								
	a	b	c	a	b	c	a	b	c
10대	40	40	40	38	38	38	37	35	35
20대	40	40	40	39	39	39	36	36	36
30대	37	37	39	35	35	38	34	34	37
40대	34	34	38	33	33	36	32	34	39
50대	34	34	34	32	34	35	31	35	35
합계	185	185	191	177	179	186	170	174	182

<표 8. 설문 결과 - '손아랫사람 혹은 하급자'>

14) 데이터 정리 상에서 '친밀도'는 다음과 같이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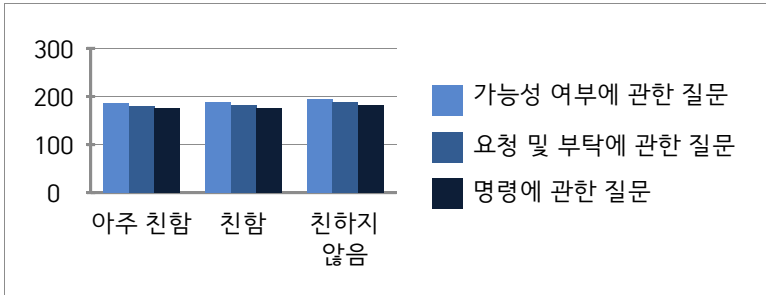
- 친밀도: a - 아주 친함, b - 친함, c - 친하지 않음

앞에서 대화상의 관계도에 따라 질문의 유형별로 사회언어학 요소인 연령과 친밀도에 의해 나타난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한 결과를 <표 9>와 같이 정리하였다.

질문 유형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요청 및 부탁에 관한 질문			명령에 관한 질문			
		a	b	c	a	b	c	a	b	c	
연령	관계도	A	189	191	196	182	183	189	181	181	182
		B	185	186	193	178	181	188	172	174	182
		C	185	185	191	177	179	186	170	174	182
	합계	559	562	580	537	543	563	523	529	546	
	평균값 (△0.5)	186	187	193	179	181	188	174	176	182	
	총계	566			548			532			
총 평균값 (△0.5)		189			183			177			

<표9. 설문 결과 - 질문 유형별 '알겠다' 사용의 평균값>

<표9>에서 '알겠다' 대답 방식의 사용은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고 '명령에 관한 질문'에서 제일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의 경우 '알겠다'의 '-겠-' 선어말 어미의 의미와 기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또한 친밀도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친밀도가 낮아질수록 '알겠다'라는 대답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하지 않은 경우에 '알겠다' 대답 방식이 '알았다' 대답 방식 보다 예와 격식에 맞는 대답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표10. 설문 결과 - 친밀도의 ‘알겠다’ 사용의 평균값 비교〉

이와 같이 친밀도를 기준으로 3가지 질문의 유형별로 나타난 평균값을 비교한 후 <표10>과 같이 정리하였다. 위의 <표10>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친하지 않음’의 경우에 ‘알겠다’ 사용의 평균값이 제일 높고 나타났고 ‘명령에 관한 질문’에서 ‘아주 친함’의 경우 평균값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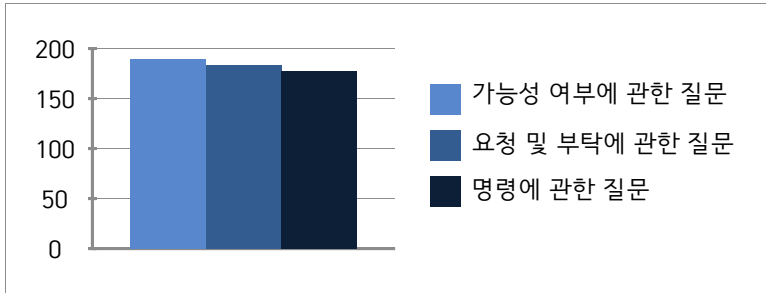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이 ‘알겠다’ 대답 방식은 ‘-겠-’의 선어말 어미가 지닌 의미 및 기능의 역할과 예와 격식에 맞는 대답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4.3장에서 설문지 참여자의 ‘알겠다’ 대답 방식의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3. 질문 유형

본 연구에서 설문지법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들 중에서 설문지 참여자가 대답 방식의 사용하는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사회 언어학적 요소인 성별, 연령, 관계도, 친밀도는 고려하지 않고 3가지 질문 유형별로 ‘알겠다’ 대답 방식 사용의 이유에 관해서 다수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의 <표11>은 설문지에 ‘알겠다’ 대답 방식을 선택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질문의 유형별로 각각의 전체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친밀도’와 ‘관계도’에 의해서 나타난 수치에 대해서 각 질문에 대한 평균값을 수치로 나타냈다.



<표11. 설문 결과 - 질문 유형별 ‘알겠다’ 사용 평균값 비교>

먼저,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의 경우 ‘알겠다’ 대답 방식을 선택한 총 응답자 수는 전체 600명 가운데서 566명이었다. 이를 평균값으로 환산하였을 때 189명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즉,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의 경우 전체 200명 가운데서 189명이 ‘알겠다’라는 대답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요청 및 부탁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600명 가운데서 548명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평균값은 183명이라는 수치로 나타났다. ‘요청 및 부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200명 가운데서 183명이 ‘알겠다’ 대답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령에 관한 질문’에는 ‘알겠다’ 대답 방식을 선택한 응답자 수는 전체 600명 가운데서 532명이었고, 평균값은 177명이라는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명령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전체 200명 가운데서 177명이 ‘알겠다’ 대답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위에 <표11>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질문의 유형별로 ‘알겠다’ 대답 방

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순위	이유	인원 수
1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다.	85
2	'알았다' 대답 방식은 어감이 좋지 않다. '알았다' 대답 방식은 불쾌감을 줄 것 같다.	68
3	습관이다.	22
4	기타: 이유 없다, 그냥 사용한다.	14
전체	-	189

〈표12.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알겠다’ 답변 이유〉

위에 <표12>를 살펴보면 우선,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알겠다’ 대답 방식을 선택한 참여자는 전체 200명 가운데서 189명이었다. 189명을 대상으로 ‘알겠다’ 대답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정리한 결과 크게 4가지로 나뉜다. 4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다’가 제일 많았다. 이는 상대방의 가능성 유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의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알겠다’ 대답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알았다 대답 방식은 어감이 좋지 않다’ 또는 ‘알았다 대답 방식은 불쾌감을 줄 것 같다’였다. 이 두 개의 이유는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청자인 상대방이 들었을 때 불쾌하거나 언짢은 기분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요청 및 부탁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이유를 <표13>에서 정리하였다. 첫 번째 이유로 ‘상대방이 부탁한 것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라는 답변이었다. 질문의 유형을 고려해 본다면 상대방의 요청과 부탁에 대해서 정중하게 대답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순위	이유	인원 수
1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하겠다.	87
2	'알겠다' 대답 방식은 '알았다' 대답 방식 보다 예의가 있는 표현이다.	59
3	'알았다' 대답 방식은 어감이 좋지 않다.	28
4	기타: 습관이다, 이유 없다, 그냥 사용한다.	9
전체	-	183

〈표13. 요청 및 부탁에 관한 질문-‘알겠다’ 답변 이유〉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과 ‘요청 및 부탁에 관한 질문’의 이유를 비교한다면 큰 차이점은 없다. 그러나 ‘알았다’ 대답 방식의 ‘어감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를 보였다.¹⁵⁾

마지막으로 ‘명령에 관한 질문’에 관한 이유는 <표14>에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가 제일 많은 이유였고 두 번째는 ‘알았다’ 대답 방식의 ‘어감이 좋지 않다’가 차지하였다.

순위	이유	인원 수
1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할 것이다.	91
2	'알았다' 대답 방식은 어감이 좋지 않다.	54
3	'알겠다' 대답 방식은 '알았다' 대답 방식 보다 예의가 있는 표현이다.	23
4	기타: 습관이다, 이유 없다, 그냥 사용한다.	9
전체	-	177

〈표14. 명령에 관한 질문-‘알겠다’ 답변 이유〉

15)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과 ‘요청 및 부탁에 관한 질문’에 관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의미하는 비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알았다’대답 방식의 어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68명에서 28명으로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질문의 유형에 따라 ‘알겠다’ 대답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하더라도 의미하는 의도가 달라짐을 보여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알겠다’ 대답 방식이 ‘알았다’ 대답 방식 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가 있는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질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답을 하여도 그 의도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본고에서는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알겠다’와 ‘알았다’라는 두 가지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알았다’라는 표현 방식 보다 ‘알겠다’라는 대답 방식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질문의 유형에 따라 ‘알겠다’라는 동일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도 그 의도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사회언어학적 요소인 성별, 연령, 친밀도, 관계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알았다’ 대답 방식의 사용하는 수치가 높아졌고 친밀도가 낮을수록 ‘알겠다’ 대답 방식의 사용하는 수치가 높아졌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알았다’ 대답 방식에 비해서 ‘알겠다’ 대답 방식이 상대방에게 존중과 예의 있는 공손한 표현이라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겠’선어말 어미의 의미 및 기능이 대답 방식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언어학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알았다’와 ‘알겠다’의 대답 방식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알겠다’라는 대답 방식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공손한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질문을 한 상대방을 존중과 배려하려는 한국이라는 사회 및 문화적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본고의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 동아, 1999.
- 박영순, 『한국어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2001.
- 변정민, 『국어의 인지(認知) 동사 연구 -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국어국문학과, 2001.
- 우형식, 『인지 동사 구문의 유형 분석』,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1991.
- 이익섭·채완,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1999.
- 이오덕, 『우리 소설에 나타난 남의 나라 말과 말법: 이인직에서 김동인까지』, 『국어생활』, 국어연구소, 1990.
- Labov, W., the Sociolinguistic Patterns,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1972.
- Sankoff, G., A Quantitative for the study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 R. Bauman and J. Sherzer eds., Explorations in the Ethnography of Spea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Abstract

The study on the way of the answer ‘알겠다’ and ‘알았다’
: By the Sociolinguistic methods

Kim, Seong-hwan

This study is a research on the way to answer of verb ‘알다’ on the same question. It is used by two forms of verb ‘알다’ on the same question in Korean language. In two forms of verb ‘알다’, the one is the form ‘알았다’, and another is the ‘알겠다’. When viewed in terms of the morphological side, it is not same ‘알았다’ and ‘알겠다’ at all but, in the meaning and functional side two forms ‘알았다’ and ‘알겠다’ are the same. this is the unique feature of only the Korea language. In this paper two forms ‘알았다’ and ‘알겠다’ will be analysis in sociolinguistic perspective.

This as the feature of the only Korean, can predict cause to social and cultural factors of Korean native speakers. To examine the reasons, it will analyzed by the social and cultural elements which is gender, age, profession, education, intimacy and relationship. This study is the research about Korea language’s features that is two method of answers on ‘알다’ verb. Korean native speaker’s special features be compared by two forms ‘알았다’ and ‘알겠다’ also be analyzed. Through this study, this researcher expects to be served as the substantial reference material on Korean Education.

Key Word : the way of the answer, 알겠다, 알았다, social elements, cultural elements, the research

김성환

소속 :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전임 연구원

전자우편 : sseille14@naver.com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